

■ 2019 JDC와 함께하는 제주탐방 2차 청소년캠프

“‘스쿨존’ 안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제주 교통문제 실태 점검
지역민 대상 설문조사도
“스쿨존내 과속차량 많아”

“어린이 교통안전 말로만 실천하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사람도 천천히, 차도 천천히’ ‘과속, 어린이 교통사고로 가는 가장 빠른 길’.

29일 한라일보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2019 JDC와 함께하는 제주탐방 청소년캠프’ 참가자들이 만든 어린이 교통안전 해결 공익 광고 문구다.

이날 참가자들은 ‘1일 한라일보 어린이기자’가 되어 현장탐방을 통해 제주 현안인 교통문제 실태를 살펴봤다. 팀별로 구역을 나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안전 표지판을 살펴보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스쿨존’ 교통안전지도도 제작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육교·신호등 등 안전 시설 추가 설치 ▷사각지대 없는 CCTV 설치(360° CCTV) ▷과속·불법주정차 강력 단속·벌금 부과 ▷운전자·보행자 절대적인 조심(주위



‘2019 JDC와 함께하는 제주탐방 청소년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스쿨존’ 교통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살피기)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교육 ▷견인한 차를 국가재산으로 압류하거나 경찰차로 사용 ▷과속방지턱 설치 ▷주차장 추가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역주민 대상 인식설문조사 결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을 묻은 질문에 ‘과속 등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차량, 보행자 주

의 부족 등이 꼽혔다.

강동휴 학생(동광초 6)은 “스쿨존 내 있는 여러가지 어린이를 위한 표지판을 살펴봤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이었는데도 차가 빨리 달리기도 하는 등 표지판을 보고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강군은 어린이 교통 안전 해결 공익광고를 통해 ‘안전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행’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차량, 보행자 주

김채연 학생(삼성초 4)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알게 됐고, 처음으로 지역주민과 인터뷰를 하면서 진짜 기자가 된 듯한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주탐방 청소년캠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한라일보가 공동 주최하며 도내 초(4~6)·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총 4회 진행된다. 제3차 청소년캠프는 10월 6일 열리며, 1일까지 선착순(20명) 모집중이다. 오은지기자

“제주교통약자지원센터 이사장에 웬 선거사범?”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선거법 범죄자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 내 정설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달 2일 제주도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이사장 선출 및 예상추경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대의원 총회를 열 예정”이라며 “하지만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모 정당의 도지사 후보 대변인을 맡았던 A씨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A씨는 지난 2일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확정 받은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제주 ‘만전’

도축장 방역 전담관 배치 제주공항 방역 인력 추가

경기도 파주에 이어 인천, 김포, 인천의 강화 등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ASF 유입방지 검역 강화에 지속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제주도는 모든 축산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이동 중지 시행 기간을 연장한데 이어 예비비 19억원을 긴급 투입해 소독시설 보강과 소독약품 공급 확대, 제주공항 국제선 방역역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도내 가축시장 운영도 지난 26일부터 잠정 중단했다.

ASF 전파 가능성이 높은 도내 도

축장에 대해 내부 소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도축장 입구에 ‘도축장 방역 전담관’을 배치해 내부소독 이행여부 점검과 차량이동이 통제된다.

앞으로 제주도는 일시이동중지해제시 농장간 바이러스 교차전파 차단을 위해 출하후에는 돼지수송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소독조치를 진행한다.

ASF 바이러스 유입차단 강화를 위해 동물방역과 검역관 과정을 반장으로 점검총괄팀, 농장점검팀, 축산시설(거점, 도축장, 사료공장 등) 점검팀 등 3개팀을 편성해 매일 방역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시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여부와 농장단위 방역수칙 이행 여부등을 점

검할 방침”이라며 “위반사항 확인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日 전범기업 제품 구매제한 불발되나

교육위·행자위 심의 ‘유보’ 전국 시·도의회 신중론 부각

제주도내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논의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점쳐진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376회 임시회에서 다들 예정이던 ‘제주도·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심의가 유보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검토 부족 등을 이유로 10월 임시회로 넘긴 것과 달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심의 자체를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지사와 도교육감이 도청과 교육청 본청은 물론 유치원과 학교, 도 직속 기관 등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 할 수 없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 당시 우리 국민을 강제로 동원해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입힌 일본 기업 등이다.

도의회가 조례안 처리를 미룬 데에는 전국 시·도의회 사이에서 ‘신중론’에 힘이 실린 데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구매 제한을) 국가 차원이 아닌 일부 지역에서만 별도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어 전체 추이를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자전거로 원도심 골목길 품품 순찰

동부서 자전거순찰대 창단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자전거순찰대(사진) ‘드림 팀(DREAM TEAM)’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창단된 자전거순찰대는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지역경찰 등 9명으로 구성돼 운영되며, 치안 사각지대의 선제적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순찰대는 매주 1회(토요일) 동부경찰서 지역 내 여성 안심구역·여성안심 귀갓길을 점검하고, 순찰차가 미



치지 못하는 골목길, 시장에서 순찰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순찰대원들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순찰요청 지역 접수, 주민불편사항 청취 등과 더불어 각종 범죄예방 홍보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계약금만 받고 공사는 제대로 안해”

리모델링 피해자 수십명 고소장 접수… 경찰 수사

한 인테리어 업자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만 받고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윤모(30)씨 등 4명이 인테리어 업자 A(40)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부경찰서로 보내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고소장에서 윤씨 등은 A씨가 지난 4월 주택 공사 대금을 받고 공사를 해오다 갑자기 자금 문제로 공사를 하기 어렵다며 지속해서 공사를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씨 등은 A씨가 공인된 건축사에게 설계 의뢰

를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건축사에 설계를 맡긴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산후 조리하는 동안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A씨와 계약했지만 A씨는 공사대금을 받고서 일부 공사만 한 채 방치하고 있다”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모친상, 아이 입원 등의 핑계를 대며 공사 기한 연장을 요구하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시세보다 낮은 견적가를 제시해 다수의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페인트·방수 등 다른 협력업체들도 A씨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단체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2019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김녕·월정 지질트레일 개최를 축하합니다.

2019년 제주도세계지질공원

김녕·월정 지질트레일

Gimnyeong-Woljeong Geotrail

2019. 10. 3. (목) ~ 10. 6. (일)

장 소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월정리 일대

개막식 2019년 10월 3일(목) (김녕해수욕장 주차장 특설무대)

주 최: 제주특별자치도

주 관: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트레일위원회

주 현: 국립공원관리공단 | 대한지질학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관광공사

참여기관: 구좌읍사무소 | 구좌읍이장단협의회 | 구좌읍주민자치위원회 | 김녕리 | 월정리 | 한라일보사

기획/행사기획: 연수목, 실사출력, 배너, LED채널간판 옥외광고물, 간판, 각종사인물제작시공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시대, 행사부스, 집기 제작

CI, BI, 패키지:

해설사 동행 탐방 프로그램

전문 해설사와 함께 트레일 코스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들으며 탐방하는 프로그램

※ 운영 10명(전날)부터 신청 가능

2019. 10. 3(목) ~ 10. 6(일)	10:00, 11:00, 14:00 1일 3회	전문 해설사 2인과 동행
---------------------------	------------------------------	---------------

전문가와 함께하는 지질 탐방 프로그램

탐방객을 대상으로 트레일 코스 관련 지질 및 생태 역사 문화 등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해설을 들으며 탐방하는 프로그램

※ 회당 30명 선착순 (전화 접수 / 사전예약제 (T. 064-750-2523))

10. 03 (목)	13:00	지질	전문문
10. 04 (금)		곤충	양경식
10. 05 (토)		역사·문화	강경희
10. 06 (일)		지질	류준길

10. 3 (목)

개막식전 행사(09:30~11:00)

- 김녕 전통 행사 ‘돛제’
- 김녕 전통 공연 ‘별치 후리기’
- 가수 ‘주미성’ 축하공연
- 가수 ‘강수지’ 특별공연

개막식(11:00)

- 내빈소개
- 개회사, 환영사, 축사
- 기념촬영

10. 4 (금)

공연(10:00)

- 김녕 마을 풍물단 공연

10. 5 (토)

공연(10:00~12:30)

- 김녕 마을 심바댄스
- 제주에너블보이그룹 ‘김은경’
- 제소
- 투어
- 청원

10. 6 (일)

공연(10:00~12:30)

- 구좌중앙초 단타 공연
- 소금인형
- 오버롤로우
- 더로그
- 홍조밴드

찾아오시는 길 |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7-6 김녕해수욕장

JEJU GEO TRAIL

바닷발, 빌레왓을 일구는 동굴 위 사람들의 이야기 길

☎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트레일위원회 T. 064)750-2523, 2291